

# 계룡산책

수다쟁이 닭과 비밀스러운 용의 동네 산책 이야기  
- 엄사면 편 -



# 계룡산책

수다쟁이 닭과 비밀스러운 용의 동네 산책 이야기  
- 엄사면 편 -

도서명 | 계룡산책-엄사편  
부제명 | 수다쟁이 닭(鷄)과 비밀스러운 용(龍)의 동네 산책 이야기

발행 | 2021년 12월 15일  
저자 | 손지영(동아리 계룡산책)  
이메일 | [sonji0@korea.kr](mailto:sonji0@korea.kr)

© 손지영, 2021  
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.  
※ 본 책에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제공하는 안동엄마까투리, 국립공원  
반달이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.




아무도 없는 공원. 여긴 엄사리 음절공원이에요.  
2인용 그네를 귀여운 용이 혼자 타고 있네요.  
조금 심심해 보여요.



엣헴~







**"엿험 오늘도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?"**

앗, 계룡의 수다쟁이 닭 계순이가 공원에 나타났네요. 장난척쟁이 계순이가 혼자있는 친구를 두고 그냥 넘어갈리가 없죠.

**"엿험 안녕하신가. 자네, 처음 보는 얼굴이구만?"**

"..."

**"흠 말이 없는 친구구만. 이 몸이 마침 산책 중인데, 계룡 소개 좀 들어볼텐가?"**

"..."

"엿험, 계룡은 말이야.

닭 계자에 용 용자를 쓰지. 계룡산 생긴  
것이 닭벼슬을 머리에 쓴 용 같다고 해서  
옛날부터 그렇게 불렀다더군."

"어때 자네눈에도 닭이랑 용이 보이는가?  
지명에 동물이 두마리나 들어간 건 흔치 않다  
고 하더군. 대단한 곳이라고 여기가. 엿험.

그리고 계룡시에는 말이야..."



계룡  
鷄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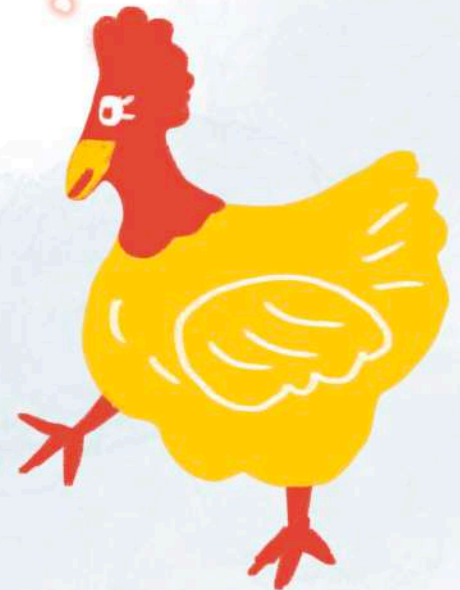
\*팩트: 계룡이란 지명의 최초 기록은 당나라때 어  
린이 교재인 <한원>에서 찾아볼 수 있다. '백제  
시대 계룡산'이란 구절이 나오는데 위치상 계룡산  
으로 추정된다.

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<삼국사기>이다. 신라가  
삼국을 통일할 때 전국을 정비하며, 국가 제사지로 중  
요한 오악( 5개 산)을 정했는데 서악으로 계룡산이  
꼽혔다고 한다.

어머, 계룡이 얼굴이 계룡 지도였네요. 계룡시에는 동네가 4개 있어요.

"여기는 **엄사**라는 동네인데 말이야. 옛날에 이 자리에 '음'이라는 절이 있었길랑. 그래서 '음절'이 있던 마을이라고 불렀는데, 그 절 이름을 한자로 쓰려다 보니 음으로 시작하는 마땅한 한자가 없어서 엄이 되고, 절 사자를 써서 '엄사'라고 부르게 됐다더군."

\*팩트: 엄사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1757년 조선시대 지리책 <여지도서>(연산 편)이다. "엄사리는 관아로부터 동북쪽 20리 거리에 있으며..."라고 나온다. 계룡시는 원래 논산시 연산면 옆의 두마면이었는데, 2003년 계룡시 두마면으로 승격되며 분리된다. 엄사면은 2006년 두마면에서 분리됐고, 현재 계룡시 면적의 약 30%를 차지한다.





신난 계순이가 역사얘기까지 해준다네요.

"옛날 계룡이 워낙에 땅의 기운이 좋아서 원래 조선시대 수도가 될 자리였다고. 성 만들려고 돌도 옮겨놨다가" 마지막에 얹어졌지만 말야. 기운이 얼마나 좋은지, 전국에서 스님이 무당들이 다 여기서 터를 잡았다는구먼.

거기다 옆동네 신도안 쪽에 계룡대(3군본부)가 생기면서 밀려난 종교시설이 죄다 엉사리로 몰려들었으니<sup>2</sup>, 여기에 아주 귀신이 드글드글했다더군. 도깨비 터였다고. 그 많던 도깨비 지금 다 어디갔나 몰라."

\*팩트: 고려가 망하고 조선의 첫 번째 왕 이성계가, 고려때 개령에서 수도 자리를 옮겨 넓히고자 신도시 지역을 찾다가 계룡 신도안에 자리를 정하여 약 1년간 공혈을 짓기 위해 석재를 운반하였다. 그러나 수운이 없다하여 공사를 중지하였는데 그때 옮긴 석재가 지금도 남아 있다.

\*\*팩트2: 1983년 신도안에 계룡대를 만드는 <62사업>으로 신도안의 13여개 종교단체가 철거된 바 있다. 특이하게 '삼신당'이라는 종교시설 하나만이 철거에서 제외돼 신도안의 종교적 특성을 간직한 상징적 장소로 민족자로 제1호로 보존되어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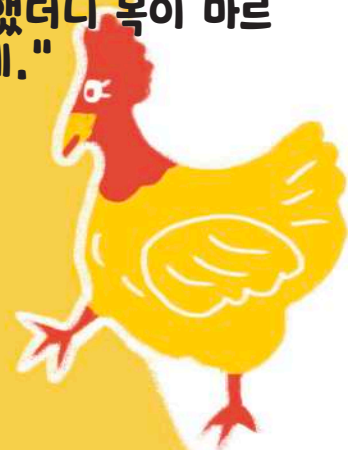
"자 이리오게. 여기는 **엄사면 향한리**라는 동네라네. 벚꽃길 산책하기 참 예쁜 곳이지. 길이 끝나는 계룡산 국사봉 밑 자락에 '무상사'는 외국인 전용 사찰이라네. 1년에 몇 개월씩 이어지는 예비스님들 수행기간이 끝나면 일반인들도 템플스테이를 하러 오는 곳이지. 스님들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만 한다면 이색산책코스로 훌륭하다네.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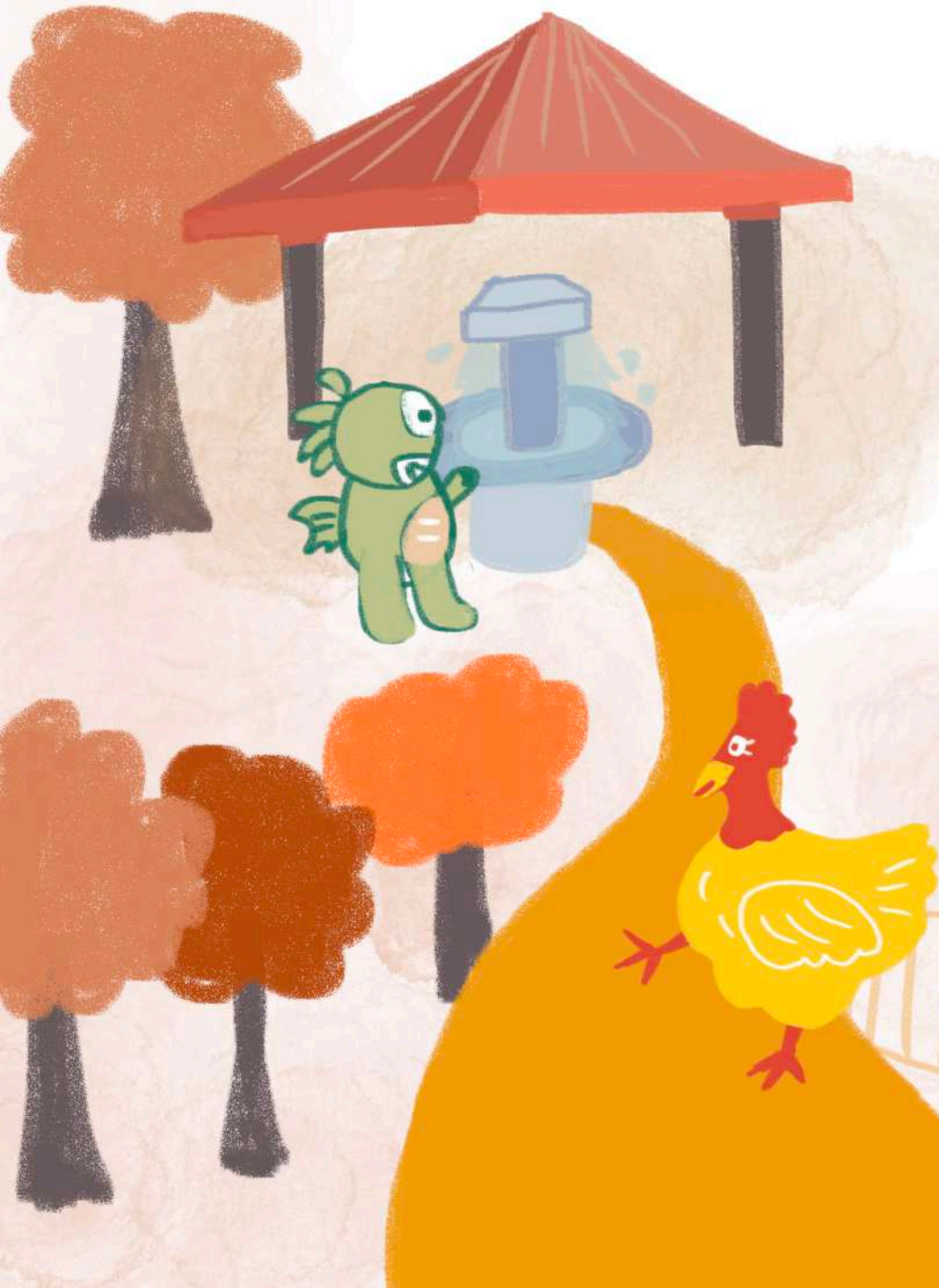
계룡산 향적산 치유의 숲

"절 오른쪽 길로 올라가면 향적산 치유의 숲에서 쉴 수 있다네."

옛험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마르구만. 날 따라오게."







이번엔 어디까요?

"엷험 여길세. 엄사리의 청송 약수터라  
네. 꼬끼오~~ 꿀꺽꿀꺽. 물맛이 좋지?  
산 입구에서 걸어서 5분이면 숲속 웅달  
샘 별세계에 도착하니, 이런 곳이 또 어  
디겠는가?"

**“용용? 우오오?! 땃었다룡!”**

"아니 용 자네 말을 할 줄 알았구만?"



맞아요. 사실 초록용은 1,000살 먹은 계룡의 터  
쫓대감 도깨비 ‘비룡이’ 였어요. 약수터 물을  
마시고 계순이 덕분에 기억을 되찾아 하늘로 승  
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.  
계룡시 엄사면 이야기 재밌었나요?

다음엔 초록용이 계룡시 두마면을 소개해주겠다  
네요. 그럼 또 만나요.





### • 책소개 •

계룡시 공무원 동아리 <계룡산책 6070>에서 2021년 활동결과물로 만든 책이다.  
<계룡산책 6070>은 계룡시 면적 60.70km<sup>2</sup> 곳곳을 방로 산책하며, 현장을 알아보는 취지로 만들어진 신생 동아리다. 책이라고 만들기 했지만, 전문가 손을 거치지 않은 낯 것이라 종이책으로 인쇄까지 하는건 나무에게 미안하다 생각했다.

아래 주소에서 전자책으로 받아볼 수 있다.

<http://bit.ly~~>

\*계룡시 업무면에 있는 다섯 개 동네 중 광석리, 도곡리, 유동리는 이번 초판에선 다뤄지 못했다.  
2022년 산책에서 보충할 계획이다.

### • 저자소개 •

손지영: 영사초등학교 2기 졸업생이니 나름 계룡도박이다. 친구들은 가정까지 꾸려 속속 독립하는데, 거꾸로 서울살이를 접고 계룡 부모님 댁으로 기어들어왔다. 출판사 근무하며 작가 호칭이 참 부러웠는데, 이런 식으로 저자놀이를 해볼 줄이야. 책 내용 상 오류제보나 의견은 [sonji0@korea.kr](mailto:sonji0@korea.kr) 으로 보내주시라.

\*함께 산책한 동아리원: 김홍주 송민선 송영근 이선희

### • 출판정보 •

초판 2021. 12. 21. 화

